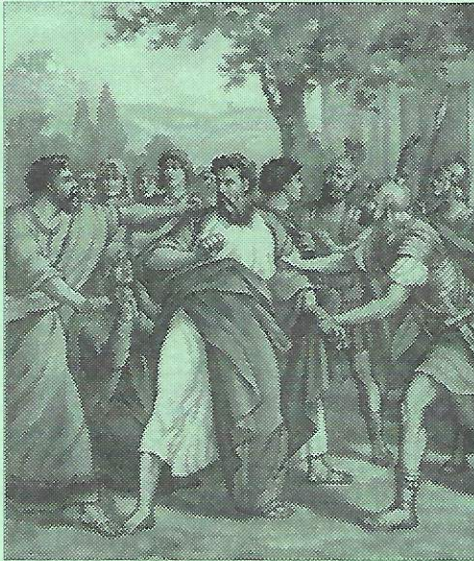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성 김대건 안드레아 대축일
제35권 32호(나해) 2015년 7월5일

[묵상]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단순히 첫 사제였기에 기억하는 것만은 아니다.
박해 시대의 희망이었던 분이였기에 기억하는 것이다.
그의 사제 생활은 일 년으로 끝난다.
기다렸던 방인 사제가 이십 대의 순교자로 사라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픔을 넘어 크나큰 시련이었다.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의심도 들었다.
스물여섯 살의 죽음은 사제가 아니더라도 애절한 죽음이다.
김신부의 죽음으로 교우들의 슬픔은 절망에 닿아 있었다.
'주님께서서는 왜 그를 데려가셨는가?'
그러나 참고 인내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순교가 희생 제물임을 깨닫기에는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는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 있다.
그의 죽음은 은총이 되어 우리 곁을 지키고 있다.
김대건 신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렉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에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4:3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3째주 - ● 요셉회 ● 사목회장단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진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도요 특전 미사	(연)민찬기 요한, 이재경 요왕 (생) 이범주 다니엘 & 김지훈 대견안드레아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이현호 요한, 권분남 콜롬바, 현시영 요셉, 이용식 베드로, 노근용 바오로 & 이금순 마리아, 김상진 토마스, 송인현 바오로, 고준희 제임스, 이종수 마틴,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구연석, 전시웅 요한, 김인주 미카엘 & 이달자마리아, 김경옥 요셉, (생)정정현 베네딕다 & 박명순 안나, 권오상 바오로, 조예림 사비나, 민석준 토마스 & 민미애 & 민영준 마르코, 조아라 아베라인, 손준호 대견 안드레아, 이태옥 아가다, 김윤서 플로라, 김지훈 대견 안드레아, 오창근 베드로 신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역대기하(2 Chronicles) 24,18-22

화답송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제 2독서 로마서(Rome)5,1-5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음 마태오(Matthew) 10,17-22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409	108	108
봉헌	목마른사슴	255	269
성체	382	284	284
파견	찬양하세	108	343

모사꾼인 라반

야곱이 에사우의 장자권을 훔치면서 가족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에사우의 눈에 띄는 날에는 야곱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피신을 했습니다. 야곱은 이름의 뜻 그대로 '사기꾼'의 삶을 산 영리하고 죄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죄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사기꾼, 모사꾼'의 전형으로 보이는 야곱도 사기를 당합니다. 야곱에게 사기를 친 사람은 다름 아닌 삼촌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자신의 집에 오래 붙들어 둘 계락을 생각해 냅니다. 그래서 라반은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 29,1-20

당시 근동의 많은 부족들은 결혼 상대자로 친척을 선호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남자들은 친척과 결혼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할 때 남자는 신부를 위해 지참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만일 남자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노동으로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칠 년간의 노력 봉사를 제시한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는다는 기쁨에 칠 년간 인고의 세월을 견뎌었습니다. 드디어 삼촌 라반과 약속한 칠 년의 시간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에게 어떤 속임수를 썼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창세 29,21-35

야곱은 욕심 많은 장인 라반결에서 힘든 세월을 잘 견디고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은 욕심을 부립니다. 야곱은 라반이 살고 있는 아람땅을 떠나 고향 이스라엘로 떠나가겠다고 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라반이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고 하자 야곱은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의 양들을 늘립니다.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기 30,25-43

라반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의 재물이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늘릴 수만 있다면 모든 계약과 속임수는 다 동원해도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약삭빠른 라반의 계산법은 오히려 자신에게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재물과 돈의 유혹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거짓된 삶을 살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야곱은()과도 한자리에 들었다. 그는 레아보다()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다시()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창세29,30)

“이렇게해서 야곱은 대단한()가 되어, 수많은()과()뿐만 아니라 여종과 남종, 낙타와 나귀들을 거느리게 되었다.”(창세30,43)

하느님께 사로잡힌 사람

‘너희는 나 때문에 끌려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너희는 내 이
름 때문에 미움을 받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마태 10,18.22 참조)

오늘 복음은 예수님 제자들의 운명을 암시해줍니다. 제자들
이 환난과 박해 그리고 죽음까지도 각오하고서 주님을 증언하
면 구원을 얻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다만, 제자들이 그 길을 혼
자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신
다고 하십니다.

제자에게 맡겨진 사명은 ‘주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환난이
나 박해도 증언활동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일 뿐입니다.
만일 제자가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박해도 없을 것입니
다. 진실한 증언은 말로써만 되는 것이 아니니, 당연히 자기가
말한 그대로의 삶, 즉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요구됩니다. 그
렇다면 박해와 환난이 가로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의 삶
을 살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미
사의 말씀들에서 힌트를 발견합니다. 제1독서의 즈카르야처
럼, 제자가 ‘하느님께 사로잡혀’(역대 24,20 참조) 있기에 가능
한 것입니다. 그분께 사로 잡혀 있는 한 어떠한 환난을 당하더
라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그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1821~
1846)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9월 20
일에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그
날은 한국의 103위 순교 성인 전체를 전 세계 교회와 함께 기
리는 날인 데 비해, 오늘은 김대건 신부님을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로 기리는 한국교회만의 고유 축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대로 김대건 신부님은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문초를 당하
면서도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견디어 내셨습니다. 순교로써
주님을 증거하신 성인께서도 말하자면 ‘하느님께 사로잡힌
분’이셨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모범을 따라서 많은 사제들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2014년 말 현재 한국인 사제수 4,786명)

이제는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누가 끌어가거나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환대 받고 사랑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
제는 예수님 시대나 성인의 순교 당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지만, 주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제자의 사명은 조금도 변
함이 없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주님께 사로잡
히는 일’도 여전히 절실합니다. 사제 한 분이 교회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큼니다. 한국교회와 후배 사제들
을 위한 김대건 신부님의 전구가 절실합니다.

한편, 예수님을 증거 할 사명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신자의 몫
이기도 합니다. ‘주님께만 사로잡혀 사는지 어떤지’를 따져보
는 일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혜안과 소박한 삶의 열매를 전구해 주시기를 성인께 청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 유경춘 주교/서울대교구보좌주교

독에도 있는 유통기한

독이 있다는 감자의 싹도 오래 두면
꽃이 되고 열매를 맺더군요.
유통기한이 3년 정도 된다는 쥐약,
독도 시간이 지나면 순해진다는 것이겠지.
미운 사람 돌아보지 않고 한 번 싫으면 끝까지 가고
공하게 따리 튼 마음엔 유통기한도 없네.
그러니 어찌 싹이 돋으랴, 꽃이 피랴.
내 어쩌다가 독보다 독하게 지금에 이르렀을까.

-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정광미 프란체스카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서 1,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례 테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스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박혜경 레나타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남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오늘 주일(5일, 매달 첫째 주일)은 성전 기금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 7월1일부터 2015년~2016년(6월30일까지) LA 대교구의 사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백삼위 본당에서도 평신사도협의회가 새로 조직되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유입되었습니다. 그 동안 평신도 사도직에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로 합류하신 사목위원들과 함께 본당발전을 위해 힘껏 노력합니다. 본당신부님께서 임명하신 사목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회장 : 최기남 야고보
- 부회장 : 박인식 토마스, 오혜숙 루시아
- 총무 : 현석주 아오스당
- 부총무 : 김장규 니콜라오, 김명재 아가다
- 계무분과장 : 김병태 요셉 ● 종교교육분과장 : 정동호 하상 바오로
- 복음화분과장 : 이영식 크리스토퍼 ● 전례분과장 : 김성현 유스티노
- 사회복지분과장 : 이정훈 안셀모 ● 소공동체부장 : 김준 방지거
- 시설관리분과장 : 김찬구 요한 ● 조경분과장 : 김양금 안나
- 청소년분과장 : 박현희 프란시스코 ● 체육분과장 : 박개순 도미니코

◆ 남가주 여성 제39차 꾸르실료 주말

- 일시 : 7월 9일(목)~12일(주일)
- 장소 : 아씨시 피정의집
Poverello of Assisi Retreat Center
1519 Woodworth St.
San Fernando, CA 91340
- 수강자 : 김영란 율리아
- 환영식 : 7월12일 (주일) 오후4시(강당)
- 문의 : 남해나 분다(310)384-3289

◆ 2015년 제28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주제 :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것이다.(루카 10:28)
- 일시 : 7월25일(토)오전 8시~오후 10시,
7월26(주일), 오전 8시~오후 6시,
- 강사 : 황창연 신부(성필립보 생테마를 관장),
윤민재 신부(용인대리구 성령지도신부),
김경희수녀(한국순교복자수녀회)
- 장소 : 이스트LA 칼리지 1301 Avenida Cesar Chavez
Monterey Park, CA 91754
- 참가비 : \$25(본당구입시 \$20)
- 준비물 : 도시락, 물
- 문의 : 강아네스 ☎ (310) 780-0369

◆ 남가주 남성 /여성 영어 꾸르실료 교육

- 일시 : 남성 7월 23일(목) ~26일 (주일)
여성 8월 27일(목) ~30일 (주일)
- 장소 : Poverello of Assisi Retreat House
- 신청마감 : 남성 7월 17일
여성 8월 14일
- 지도 : 이유진 유스티노 신부
- 자격 : 21세이상 봉사정신이 투철한 가톨릭 신자
- 문의 : kccmsc@gmail.com

◆ 주일학교 교리교사 모집

- 대상 : 초, 중, 고등부
- 자격 : 영어가능한 남녀교우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주일학교장 (310)709-3343

◆ 한국학교 SAT 시험 준비반 및 여름 특강 중입니다

- 기간 : 8월 8일까지 매주 토요일
- 시간 : 9:30 am~ 12:30 pm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7월5일(주일) *소공동체: 연휴 친교 자리 없음
- 7월12일(주일) * 토동 2반 : 짜장밥 \$3)

지나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장인모 권태만 김관기 김성현 김유미 김인성 김재영 김주량 박정자 박종열 변정선 엄세종 오일순 유보나 육근주 이영석 이현주 이형삼 이효세 임 순 임한나 장영진 정남형 조소영 주대중 최원석 최재은 허정자 홍석인 합계: \$2,825	성전헌금 장인모 권태만 김관기 김주량 박정자 변정선 엄세종 이현주 이형삼 이효세 임 순 임한나 장영진 정남형 주대중 최원석 허정자 합계 : \$1,155
주일미사 헌금 : \$2,562	주보광고 : \$1,170 주일학교 수표교환 : \$ 4,800

◆제16차 한국어 교사 학술대회

- 기간 : 8월 11일(화)~15일(토) (5일간)
 - 주최: 미주한국학교연합회
 - 등록마감: 07월 14일
 - 장 소: A과정: 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
680 Wilshire Place, CA 90005, USA
B과정 및 A+B통합과정: Red Lion Hotel,
1850 S. Harbor Blvd, Anaheim, CA 92802.
- 학술대회는 전 과정 수료증이 발급되며, 특히 A 과정은
신임교사나 한국학교 교사에 관심이 많은 분에게 매우
유익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학술대회 참가자 등록비 지원)

◆1회 차세대 세미나

- 주최: 미주한국학교연합회.
- 날짜: 2015년 8월 15일(토) 9a.m~8:00p.m 예정.
- 장소: Red Lion Hotel, Anaheim
- 등록마감: 07월 14일
- 참여 대상: 현재 한글학교 보조교사(9학년 이상)와
한글학교 졸업생 중 한글학교 교사에 관심 있는 사람
(전 과정 참석 시 수료증 발급)

◆남가주 청년 성령 기도회

- 청년들을 위한 기초성령세미나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 21,17)
- 일 시 : 7월 10일(금)오후5시 ~7월 12일(주일)오후 4시
 - 대상 : 하느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젊은이
 - 피정지도 : Fr. Joe Kim
 - 참가비: \$150
 - 장소 : Divine Word Retreat Center, Riverside
 - 문의 : 김모니카 (310)999-1142
최루이스 (714)392-1732

◆제21차 남가주 선택 주말

- 일 시 : 7월 17일(금) ~7월 19일(일)
- 대상 : 25세~37세 사이의 가톨릭미혼남녀
- 참가비: \$300(본당신부님 지원여부 확인)
- 장소 : De Paul Evangelization Center(420 Date St.
Montebello, CA 90640
- 문의 : Peter Koo (213)605-2817

◆이나시오 영신수련에 따른 침묵피정

- 일 시 : 7월 31일(금) ~8월 2일(주일)
- 지도신부 : 하태수신부(예수회)
- 참가비: \$270(독방, 숙식제공)
- 신청마감 : 7월 17일, 선착순18명
- 장소 : Prince of Peace Abbey
650 Benet Hill Road
Oceanside, CA 92058
- 문의 : 정도로테아(323)937-2083, (818) 321-9505

소공동체 부 장 김준 방지거 625-3312
차 장
차 장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이태옥 아가다 991-4838 7/14(화) 오후 6시
	2	장소영 패츨릭 781-0787	이근테 세르지오 871-0787 7/25(토) 오후 6시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560-7120 7/17(금) 오후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김주량 요한 490-9662 7/11(토) 오후 6시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진영태 요한 909-557-7490 7/11(토) 오후 6시 중국식당
	3	박명순 안나 968-7600	정정현 베네딕다 995-6342 7/7(화) 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박정후 아네스 625-3312 7/19 (일) 12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테레사634-6923 7/14(화) 오전11시 강당
	3	김유미 사비나 738-5305	김유미 사비나 738-5305 7/11(토) 오후 6시30분
토런스 북 정병옥울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404-1607	황지영 안젤라 938-8089 7/19(일) 오전 11시 Delthone Park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9171	1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혜영 아네스 749-3151 7/11(토) 오후 7시
	2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박종선 리비나213-700-6983 7/10 (금)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이재준 요한 793-6157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정지영 프란치스코 503-927-0770 7/26(일) 오후 3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617-3568 7/14(화)오전10시30분Hesse Park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회의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제단체회의	오후1시
-------	------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Andreas)는 1821년 8월 21일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솔외 마을에서 아버지 김제준 이냐시오와 어머니 고 우르술라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대건의 아명은 재복(再福)이고 이름은 지식(芝植)이라고 하는데, 그의 집안은 열심한 구교 집안이다. 김대건의 증조부 김진후 비오(Pius)와 아버지는 순교로써 신앙을 중

거한 순교자다. 신앙 깊은 순교자의 집안에서 성장한 김대건은 굳센 기질과 열심한 신덕으로 충실히 생활하던 중, 16세 때인 1836년에 모방 신부에 의해 최양업 토마스와 최방제 프란치스코와 함께 마카오로 유학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프란치스코는 병사하였으므로, 남은 두 신학생만이 훌륭히 학업과 성덕을 닦았으나 나이가 25세에 이르지 못하여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 무렵 파리 외방 선교회가 조선 교구를 담당하여 주교와 신부를 조선에 입국시켜 전교하고 있는 중이었으나, 조선이 외국과 수호조약을 맺지 않아 종교자유가 없었으므로 프랑스 루이 필립 왕이 파견한 함대의 세실 제독이 그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나섰다. 김대건은 세실 제독의 통역관이 되어 조선이 들어갈 메스트르이 신부와 함께 에리곤호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세실 제독이 갑자기 조선 항해를 중지하게 되어 김대건은 혼자 육로로 본국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변문에 이르러 조선 사절단의 일원인 김 프란치스코를 만나 본국 소식을 자세히 듣게 되었는데, 성직자를 비롯하여 아버지와 많은 신자들이 순교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국을 서둘러 그 해 12월 29일 혼자 의주 변문을 거쳐 입국하였으나 중도에서 본색이 탄로날 위험이 생겨 다시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 김대건은 백가점(白家店)과 소팔가자(小八家子)에 머물며 메스트르 신부로부터 신학을 배우고, 1844년 12월 15일 페레올 고 주교로부터 부제품을 받고, 다시 입국을 시도하여 고 주교와 함께 변문으로 왔으나 김부제 혼자만 1월 15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1845년 4월 주교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상해에 갔다가 그 해 8월 17일 그곳의 김가항(金家港)성당에서 페레올 고 주교 집전으로 사제품을 받아 조선교회의 첫 사제가 되었다. 이어 8월 24일 상해에서 30리 떨어진 횡당(橫堂)신학교 성당에서 다

블뤼 안 신부의 보좌를 받으며 첫 미사를 집전하였다.

같은 달 31일, 고 주교와 다블뤼 안 신부를 모시고 라파엘호라 명명한 작은 목선을 타고 상해를 출발하여 1845년 10월 12일에 충청도 나바위라는 조그마한 교우촌에 상륙하였다. 김 신부는 선교활동에 힘쓰는 한편 만주에서 기다리는 메스트르 이 신부를 입국시키려고 애썼다. 그러나 의주 방면의 경비가 엄해지고 주교는 바닷길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위해 백령도 부근으로 간 김 신부는 순위도에서 1846년 6월 5일 밤에 체포되었다. 체포된 김 신부가 황해 감사 김정집의 심문에서 자신은 조선에서 출생하여 마카오에서 공부했음을 토로하자 황해도 감사는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이 사건의중대성을 인식하여 중신회의를 열고 서울 포청으로 압송케 하였다.

일부 대신들은 김 신부의 박학한 지식과 외국어 실력에 탄복하여 배교시켜 나라의 일꾼으로 쓰자고 하는 의견이 많아 배교를 강요했으나, 이에 흔들림 없이 김 신부가 도리어 관리들을 교화시키려고 하자 사학의 괴수라는 죄목을 붙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김 신부는 사제생활 1년 1개월만인 1846년 9월 16일에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이때 김 신부의 나이는 26세였다. 그는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 (Pius XI)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시성되었다.

◆가톨릭 굿뉴스(www.catholic.or.kr)

[교리상식]

성사란 무엇일까요?

☞성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거룩한 표지입니다. 성사의 은총으로 사람은 거룩하게 되고 하느님을 공경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성사에는 일곱 가지가 있는데, 성사마다 예식도 다르고 그 의미도 다릅니다.

◆ 「예비 신자 궁금증 105가지」 / 가톨릭출판사

[기도묵상]

성인들 모두가 똑같은 형태의 거룩함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지는 않지만, 모든 이들이 하느님께 도달하게 됩니다.

-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